

## 우리 팔팔이,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라길



지난 9월 3일, 288g으로 태어난 건우는 2kg의 건강한 몸무게로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겼다. 사진 왼쪽부터 건우 부모와 건우, 서울아산병원 신생아팀 김애란 교수.

지난 4월 4일 서울아산병원 6층 분만장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손바닥 하나에 모두 가려질 만큼 작았던 아이의 이름은 건우. 몸무게는 불과 288g였다. 400g 이하 체중의 신생아가 무사히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었기에 건우의 부모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은 건우를 위해 혼신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을 알아줬을까? 생과 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153일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견뎌낸 건우는 지난 9월 3일 무사히 부모의 품에 안겼다.

###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축복

건우는 어머니 이서은 씨에게 축복과도 같았다. 이미 유산으로 아

이를 잃었던 아픔을 겪은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아이가 건우였다. 이서은 씨는 스스로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건우를 맞이할 준비에 전념을 다했다.

임신 초기만 하더라도 건우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임신 17주 무렵, 정기검진을 위해 들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까운 대학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태아가 성장지연이 심하고, 동시에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희망이 없다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저 경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럼에도 절대 건우를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을 찾아온 소중한 아이기에 무사히 태어나 세상 누구보다 예쁘게 키우고 싶었다. 그날로 건우를 건강히 태어나게 해줄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302g의 초미숙아였던 사랑이가 서울아산병원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다.

### 288g으로 태어난 팔팔이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이서은 씨는 진료를 맡은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를 보자마자 “사랑이처럼, 무사히 건우를 낳고 싶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검사를 해보니 태아의 크기가 원래의 임신 주수보다 5주가량 뒤쳐질 정도로 작았고, 그 외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 교수는 서로 최선을 다해보자며 용기를 북돋워줬다.

“건우를 위해 모든 시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와 뱃속에 있었던 건우를 밤낮으로 살펴주신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들 역시 절대적으로 믿었죠. 302g으로 태어난 사랑이도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깐요.”

4월 1일, 입원을 한 이서은 씨는 고위험 산모를 위한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엄마의 뱃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건우의 심장이 느껴지는 등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4월 4일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처음 우리 건우를 봤을 때 너무나 작아서 놀랐죠. 그러다 건우가 배꼽을 감고 있는 호스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호스가 엄마와 자신을 이어주는 탯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288g으로 태어난 건우에게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들은 팔팔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서은 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팔팔이가 팔팔하게 퇴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되뇌며 아이가 무탈하길 간절히 빌었다.

###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서은 씨는 태어난 건우를 위해 경상남도 함안의 집과 서울아산병원까지의 왕복 700km의 거리를 쉽 없이 달리며 모유를 전달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걸리는 강행군이었지만 이서은 씨와 남편은 건우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건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만날 수도 없었지만, 서울아산병원 신생아팀이 잘 돌봐줄 것이라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



건우는 팔팔이라는 별명처럼 팔팔하게 잘 지내고 있다. 몸무게는 3.4kg으로 늘었고, 엄마와 눈도 맞추며 웅알이도 곧잘 낸다.

이러한 노력과 마음을 알아줬는지 건우는 고비마다 놀라운 힘을 보이며 삶의 의지를 나타냈다. 장염이 생겨서 일주일 가량 금식을 하며 정맥관을 통해 영양분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냈다. 폐동맥 고혈압과 미숙아 망막증도 나타났으나 약물 치료로 조절됐다. 마지막인 탈장 수술도 견뎌낸 건우는 153일간의 인큐베이터 생활을 마치고 2kg대의 건강한 몸무게로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현재 건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나가고 있다. 손바닥 한 줌보다도 작았던 건우는 최근 3.4kg의 몸무게를 자랑하며 팔팔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팔팔하다. 엄마의 노래에 웃기도 하고, 품에 안겨 눈을 맞추고 웅알이도 내며 애교도 부린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기적처럼 건우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이서은 씨는 바람은 건우가 바르고 건강하게만 커가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기적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베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글 편집부